

해남 오리농장 확진...전남 3년만에 ‘AI 공포’

나주·영암 농장도 조사...26만마리 살처분
부여 닭 첫 발병...‘서해안 벨트’ 타고 확산

해남군 송지면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면서 전남지역에도 3년 만에 ‘AI 광풍’이 불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특히 AI가 발병한 이 농가의 주인이 나주·영암에서도 다른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충남과 경기 등지의 종계장과 철새도래

지 등지를 중심으로 AI가 퍼져나갈 기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전남도는 “해남 송지면 씨오리농장에서 지난 23~24일 폐사한 오리 2만5천8백여 마리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농장의 주인이 운영해 AI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온 나주 세지면의 씨오리농장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진단이 진행 중이며, 이 주인이 운영하는 영암 덕진면의 또 다른 씨오리농장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해남, 나주, 영암의 해당 농장으로부터 반경 3km 안 위험지역에 있는 8개 닭·오리농장 26만4300마리를 27일까지 살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또 충남 부여 AI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도내 양계장 5곳에 대해 임상관찰을 하고 농가와 철

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도 강화했다. 전북에서 시작된 이번 AI는 날이 갈수록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충남 부여 종계장에서 발견된 닭 사체에서도 AI가 검출됐고, 충남 당진 삼교호에서 발견된 가창오리 사체에서도 부검결과 고병원성 AI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경기도는 25일 화성시 시화호 일대 철새 분변에서 AI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고,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서 채취한 철새 배설물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AI 확산에 따라 살처분 닭·오리로

가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AI 발병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추가 살처분 대상이 된 닭은 148만2000마리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AI가 전남·충남 등으로 확산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전국적으로 발동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26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해남 오리농장 주인이 운영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나주시 세지면의 오리 농장에서 관계자들이 오리를 살처분하기 위해 비닐을 들고 축사로 들어가고 있다. 광주일보의 AI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감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사체 등이 직접 노출된 사진은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북 이산가족 이르면 내달 중하순 상봉

정부, 北 제안 수용...실무협의 방법 등 오늘 전달

북한은 지난 24일 설이 지난 뒤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전격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이 뒤늦게나마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구체적인 정부 입장과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 방법 등을

답은 대북 전통문을 27일 전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우리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내외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실천적으로 열어나갈 일념으로부터 우선 올해 설명절을 계기

로 북남 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를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측 통지문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됐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상봉행사는 이미 북남 적십자단체들이 합의하였던 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

비 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통하여 협의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남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한 답

을 미룰 상황은 아닌만큼 내일 우리 입장을 담은 전문문을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명절인 김정은 생일(2월16일) 이후인 2월 17일부터 일주일 가량을 유력한 상봉 가능 시기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해 추석 당시 진행하려던 상봉 행사를 위해 상봉 명단을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 준비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날 북한의 제안은 소위 ‘중대 제안’ 발표 이후 잇단 평화 공세 속에서 이뤄졌으며, 우리 정부가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한 직후 나왔다. /연철뉴스

경북대 100 부산대 90, 전남대 40 전북대 30명 삼성 대학총장 추천제 인원 할당도 영남 쏠림

올해부터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대학총장 추천제’를 도입한 삼성이 최근 전국 200여개 대학에 통보한 총장 추천인원 수를 비교한 결과 영남권 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전남지역 대학과 한국대학신문 등에 따르면 삼성이 가장 많은 추천권을 나눠준 대학은 성균관대로 115명의 추천권을 확보했다. 광주·전남북지역에서는 전남대가 40명, 전북대 30명, 조선대 12명, 목포대·호남대 각 10명, 광주대·동신대 각 8명 등이었다. 이에 비해 영남지역에서는 경북대가 100명, 부산대 90명, 영남·부경대 각 45명, 동아대 25명, 창원대 12명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성균관대 다음으로 서울대와 한양대가 각 110명, 연세대·고려대·경북대는 100명씩 추천권을 받았다. 이어 부산대(90명), 인하대(70명), 경희대(60명), 건국대(50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 모 대학 관계자는 “같은 국립대나 거점 사립대임에도 호남과 영남의 추천인원 할당 수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라면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 쏠리지 않게 안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경북대나 부산대에 비해 호남 쪽대학 추천인원이 적은 것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 때문이다. 삼성은 매년 입사자의 35%를 지방대에서 선발할 정도로 채용정책을 균형있게 가져가고 노력하고 있고, 인도나 러시아 등 외국에서도 인재를 채용하는데 호남이라고 해서 차별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선고 유예

유치위 사무총장·직원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정부보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 6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지난 24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운석(61) 유치위 사무총장과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여·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행정 각부를 통괄 관할하는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도용한 사안이 중대하고 앞으로 유사 국제대회·행사의 유치신청 과정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사무총장 등이 반성하고,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나오지는 않은 점, 범행 후 위조 보증서가 원본으로 교체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됐고 FINA도 이 과정을 아는 상태에서 광주를 후보지로 선정할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문서 위조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총 7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명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師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작설차
고품질 녹차
친환경 다원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T.222-2902, 3973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